

만화·웹툰 정보지 발간 사업 위탁용역

사업의 홍보부족으로 신청업체의 수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담은 잡지 창간에 참가한 기업들이 “웹툰 비평”에 대한 콘텐츠적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웹툰 비평의 대중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